

빛고을 미술시장 나들이 떠나볼까

16회 광주국제아트페어...23-26일 DJ센터

올해부터 '광주국제아트페어'로 명칭을 변경한 제16회 아트광주가 국내외 갤러리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정체성에 주목해 '아시아 중심 아트페어'로 도약하기 위한 또다른 출발을 알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 전관에서 열린다.

11개국 94개 갤러리 부스와 함께 특별전까지 총 111개 부스가 운영된다. 광주지역 갤러리 45곳을 포함해 선화랑, 아트웍스파리서울, 갤러리 그림손, 키다리 갤러리 등 국내 대표적인 갤러리 및 일본·프랑스·인도·방글라데시·싱가폴·미국·몽골·독일·스페인·중국 등 해외 10개국 11개 갤러리도 포함돼 있다. 600여명 작가들의 작품 4천400여점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거장들의 작품과 함께 현재 미술시장에서 눈길을 끄는 작품들도 출품된다.

국내 갤러리 중 선화랑은 원로 추상화가 곽훈의 작품을, 아트웍스파리서울 갤러리는 김창열, 김한기, 정성화 등 단색화 거장들과 백남준의 작품을 선보인다.

지역 갤러리 공동화랑은 오지호, 양수아, 천경자 등 호남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주요 작품을 전시한다.

최근 왕성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예술공간 집은 이이남, 이매리, 이인성, 하루K 등 미술 시장에서 주목받는 작가들의 작품을 내건다.

해외 갤러리 중 일본 SEIYA FINE ART 갤



11개국 94개 갤러리 참여

특별전 등 111개 부스

손상기 화백 작품전,

청년작가 라이징스타전 등 다채

러리는 무라카미 다카시와 와카루의 작품을, 스페인 Chaiter Art Gallery는 콜롬비아의 피카소라 불리는 듀반 로페즈 작품을 전시하며 국제적 위상을 더할 예정이다.

본전시 외에도 3개의 특별전도 마련됐다.

한국 근현대 미술거장이자 여수 출신 손상기 화백의 작품이 처음으로 광주에 소개된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지역 컬렉터 소장품 전시 '프로포즈'전도 관객들과 만난다. 강용운, 무라카미

다카시, 쿠사마 야요이 등 국내외의 주요 작가 23명의 작품을 소개한다. 지역미술의 미래를 탐색할 수 있는 '라이징 스타전'에는 손지원, 정송희, 권예슬 세명의 청년작가 작품을 전시한다.

올해 아트광주는 전시 환경과 관람객 휴게 공간 개선에도 나섰다. 가장 큰 대형 부스 SE아입을 지난해 16개에서 20개로 늘리고, 작품 감상에 최적화된 환경에서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사장 중앙에는 컬렉터스·퍼블릭 라운지 등을 확대해 관람객과 갤러리 관계자 모두가 교류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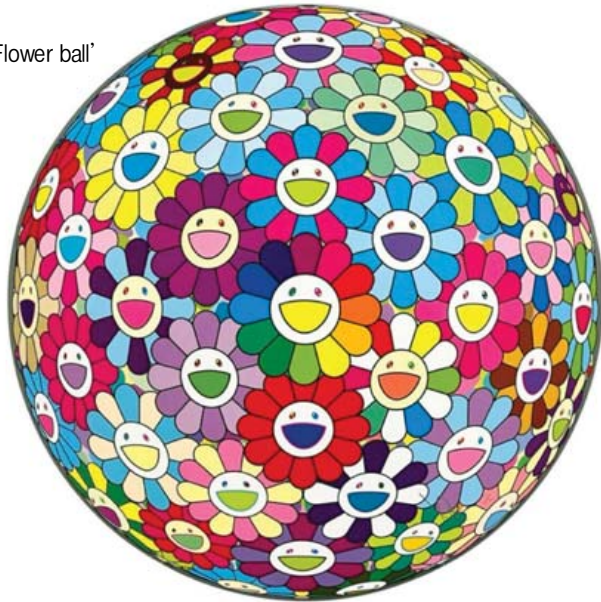
이밖에도 행사 기간에는 지역 청년기업 '치른시발'의 체험형 프로그램, 전문 도슨트 프로그램(홈페이지 사전예약)도 만나볼 수 있다.

노회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삼아 여향 광주의 정체성을 살린 아트광주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며 "미술 애호가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행사장을 찾아 문화예술을 향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입장권은 오는 22일까지 NOL 인터파크와 네이버문화예술 99티켓에서 20%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 행사 기간 현장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천경자작 '개구리'
▶무라카미 다카시작 'Flower ball'



초등생 명창 이초아 '흥보가' 완창 무대

오는 26일 전통문화관

이초아(광주송원초 6·사진)양이 오는 26일 오후 2시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강도 근제 이난초바디 흥보가' 완창 발표회를 연다. 이번 공연은 전지혜판소리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된다.

무대에서는 해학과 풍자가 살아 있는 '흥보가'의 전통적 맛을 선보인다. 초등학생이지만 이초아 양의 소리에는 진심과 단단한 내용이 묻어난다는 평이다.

공연은 1부 '대장군방-땀다 보아라', 2부 '제비점고-이매춘절'로 구성되며, 각 장단의 흐름에 따라 서사적 감정이 점차 깊어지는 구성을 취한다.

1부에는 전남도 무형유산 제29·3호 판소리 고법 이수자이자 (사)영광국악원 이사장 한수

산이 교수로 나서고, 2부는 제45회 전국고수대회 대통령상 수상자이자 광주시립창극단 상임단원 김준영이 함께한다.

이초아 양의 스승은 전지혜 명창으로, 송흥록-송만갑-김정문-강도근-이난초-전지혜로 이어지는 판소리 계보를 잇고 있다. 전명창은 송만갑판소리고수대회 대통령상,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일반부 장원 수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지닌 중견 소리꾼이다.

이초아 양은 제50회 춘향국악대전 초등부 최우수상, 제31회 금강강도근전국판소리고법경연대회 초등부 대상, 제34회 땅끝해남전국국악경연대회 초등부 최우수상 등 여러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실력을 인정받아왔다.

이번 완창 발표회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고투한 인내와 성실함으로 쌓아올린 소리의 결실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명진 기자



동물 도상으로 풀어낸 이야기 보따리

이두환 기획전, 24일까지 금봉미술관

울긋불긋한 색채와 익살스러운 동물 도상으로 인간관계의 의미를 풀어내는 전시가 마련됐다.

이두환 작가 기획전 '관계의 이미지'가 오는 24일까지 금봉미술관에서 열린다. 동화 속 주인공 공처럼 친숙하고 경쾌한 이미지로 자신과 타인의 인식에 대한 질문을 이야기 보따리처럼 풀어내는 자리다.

작가는 인간관계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묶어 담듯, 다양한 동물 도상의 형상을 작품의 주제로 삼아 그 의미를 하나씩 풀어낸다.

화면에는 다채로운 색감이 능숙하게 배치되고, 동물의 형상에 웃을 입하고 모자를 씌우며 다양한 액세서리로 몸을 꾸민 의인화가 더해져 익살스럽고 사랑스럽게 다가온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경쾌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상상하게 한다.

전시는 '과거의 인간관계와 현재의 인간관계'라는 스토리 라인을 설정해 전시장을 영역별로 지정, 작품을 분류해 선보인다.

특히 전시장 한쪽에 '엘리스의 방'을 별도로 마련해 관람객이 이야기 동산으로 들어서는 듯



'유쾌한 수다장이'

한 경험을 전달한다.

박정준 금봉미술관 학예사는 "행복과 즐거움이 녹아 있는 색채, 유쾌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품은 이번 전시는 10월 가을을 행복색감으로 물들이며 지역민과 소통으로 하나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